

[ 국제 ]

# 살만해진 中, 외자 경계령

### “자국 브랜드 키우자” 다농 등 외국기업과 분쟁 잇따라

중국에서 외자기업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제를 안전하게 지키고 민족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자도입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기업 인수와 관련,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중국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중국 서열 2위의 저압전기 제품 회사인 드리시와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합작 회사 승인을 내주지 않았으며 지난주

말부터 조사반을 파견, 반독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예비양 생수를 생산하는 프랑스의 식품 대기업 ‘다농’이 중국의 합작법인 ‘와하하’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농은 1996년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생수업체인 와하하의 지분 51%를 획득했으나 와하하가 합작회사와는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에 와하하 상표를 사용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다농측은 ‘와하하’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비합작 회사들을 합작

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와하하측은 자회사의 자본금이 근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합작회사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다농측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농과 와하하의 분쟁은 인터넷상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성토했고 있으며 민족 브랜드를 수호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자본 진출이 늘면서 국가 경제 안전을 발미로 한 민족주의의 색채가 힘을 얻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지난 주말 계속된 러시아 반(反)정부 시위에서 경찰의 비인간적인 과잉 진압이 시민의 분노를 유발, 반 푸틴 시위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한 집합 경찰이 곤봉으로 시위자를 위협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中 외환 보유 '1조 2천억 弗' 3가지 궁금증

- ① 외환 급증 원인은
- ② 외환으로 무엇을 할까
- ③ 절상압력 외면 언제까지

중국의 보유 외환이 늘어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올 1·4분기 중 분당 100만달러 꼴로 늘어나 전체 보유 규모가 1조2천억달러 가량으로 급증한 배경은 뭘까. 미국의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중국의 보유외환 급증과 관련해 월가에서 3가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중국이 방대한 외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위안(元)화 절상 압력을 계속 외면할 것인지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해답으로 페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총

공 법인의 애널리스트 왕징의 분석을 소개했다. 왕은 1·4분기 중 월평균 250억달러에 달한 자본 유입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지난해 대거 이뤄진 통화 스왑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이 방대한 보유 외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대담하게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페섹은 지적했다. 보유 외환이 증가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유사한 성격의 해외투자 기구를 설립했다. 급증하는 보유 외환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 당국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유외환 급증이 위안화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세번째 질문은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국의 과열 경기를 한껏 부추긴 핫머니의 상당 부분이 올 1·4분기 돌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난 것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페섹은 지적했다. UBS의 앤더슨은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전례없는 일”이라면서 마치 지난 97년의 아시아 외환 위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뉴욕블룸버그=연합뉴스

## “푸틴 물러나라” 러 반정부 시위 확산

### 특수부대 '오몬' 투입 진압...300여명 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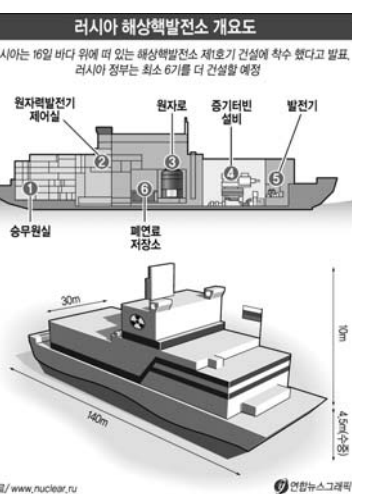
지난 주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反)정부 시위에서 모두 3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는 오는 12월 총선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인사들이

주도해 ‘동의하지 않는 자들의 행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가 작년보다 계속됐지만 3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연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연행된 사람은 100여명이 넘는 것이

고작이었다. 특히 시위 현장에는 특수부대인 ‘오몬’이 투입돼 진압에 나서고 헬기나 수포를 배회하며 현장을 주시하는 등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가 자주 일어날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 러, 해상 핵발전소 1호기 건설 착수

러시아는 16일 바다위에 떠 있는 해상핵발전소 제1호기 건설에 착수했다면서 최소한 이 같은 발전소 6개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키리엔코 러시아 원자력청 청장은 이날 러시아 백해(白海) 연안에 있는 세베로드빈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상핵발전소 개요도. 러시아는 백해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핵발전소 제1호기 건설에 착수했다고 발표. 러시아 정부는 최소 6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부시, 北 2·13 합의 강경파 공격에 직면”

### NYT “北, 美에 정책 반복 강요할 수도”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 이행조치 시험이 14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경파로부터 공격받기 쉽게 됐다.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2·13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 공화당내 매카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관련 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해왔고 북한이 핵 연료 생산을 중단하고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면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이행시한을 강요할 좋은 수단이 이제 별로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외교적인 수단이 될 수 없어 미국이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 자 지원국인 중국이 북한에게 합의의 지킬 것을 강요하도록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고 평가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BDA 자금의 반환은 불법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에도 배치된다”면서 “이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은 정책을 반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비난은 단지 미국이 북한과 아무런 협상도 하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인 대성공에 목말라 원칙을 포기하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배를 영속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전직 부시 행정부 관리들도 있다. /뉴욕=연합뉴스

## 욕조에 띄우는 라디오·비디오 셔츠? “기발하네”

IHT 기묘한 발명품 소개 ‘GPS 운동화’ ‘욕조에 띄우는 라디오’ ‘새우 내장 제거기’ ‘비디오 셔츠’ 등등.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을 덜어주거나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묘한 발명품들이 인기 끌고 있다고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뷰(IHT)가 16일 보도했다. 공기로 압착된 병을 따는 기구

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일터 가는 동안 에스프레소 커피를 끓여주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부엌이나 자동차, 사무실이나 골프장 등 어떤 장소에서든 첨단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발명품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신기한 발명품들을 소개하는 블로그 ‘기즈모도’(Gizmodo) 운영자 에담 프루처는 “매일 새롭고 기묘한 것들이 나온다”면서 “오늘은 어떤 신기한 것이 나왔나 알아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욕조 위를 떠다니며 음악 소리에 맞춰 잔물결을 일으키는 라디오나 USB로 온도를 높여주는 슬리퍼,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GPS 내장 운동화 등 재미있는 발명품들이 그것이다. 이 때문인지 기즈모도 경쟁자인 잉가젯(Engaget)도 신발발명품 또는 신제품 소개 블로그는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에 속한다. /연합뉴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수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모항)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향,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b>목포출발 “목카투어” 78,000원</b>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 출발-호텔)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 토요일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b>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b> * 일정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 출발 -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 출발일: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 토요일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b>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주중+주중) 169,000원(주중+주말)</b> ★ 렌트카 파격할인 ★ 전차중 75% 할인 ※네비게이션 포함
--	---	--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 / 139,000원(주말)

**2박3일 항공골프투어 369,000원**  
 일요일 출발 기준(광주 오전 출발, 제주 14시40분 출발)  
 \*포함내역: 왕복항공, 관광호텔 1박, 조식 2회, 그린피 2회(36홀), 샤프트 2점

**1박2일 항공골프투어 379,000원**  
 월·화·수 출발 기준(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왕복항공, 관광호텔 1박, 조식 2회, 그린피 2회(36홀), 샤프트 2점

오른기름: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하시면 49,500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 조흥은행 ●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

신원경 프랑스 탈취제

# Clean Hospital

병원내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말끔히 해소해 드립니다.

중환자실, 노인병동, 정신병동, 급식시설, 기타

【회사소개】  
 저희 Biothys Asia는 유엔 제일의 악취제거 전문 연구개발 회사인 프랑스 Biothys GmbH와 라이선스 및 원천기술이전 합의를 체결하여 기술제휴한 악취제거 전문회사입니다. 국내 전 산업분야의 악취 및 빌딩, 호텔, 병원, 철도,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매립장 등 위생시설, 농축산업 등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생산 및 개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독점 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종류】  
 산업용(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 식품가공공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중산업용(호텔, 모텔, 공공건물, 철도, 지하철 등)  
 사무실용    가 정 용    노인병원

【제품특성】  
 ■ 악취제거  
 ■ 세계특허  
 ■ 천연식물성오일, 인체에 무해

【대표전화】 (062)531-3377, 339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2-12(동림B/D 2F)  
 ■ 광주점 062)523-3939    ■ 순천점 061)744-6789    ■ 여수점 1577-0353

【대리점 모집】

대리점	광주/전남·북 및 각 지역별
취급점	점포소유자로서 상품전열 판매가 가능한 분
남·여영업직	건전한 사고로 활동력이 왕성한 분 (보험영업, 타영업에 보신 주부 환영)

“새집 냄새제거 완벽시공”